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1.2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**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**

□ 국내

○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·美 ABS, 액화가스·조선기술 협력 강화 ('26.10.30, 서울경제)

-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와 미국선급협회 ABS는 미국 휴스턴에서 액화가스·조선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
- 양측은 2025년 액화수소 운반선 및 극저온 기술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, 이번 협약을 통해 선급 검증과 실선 적용을 포함한 후속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함
- 양 기관은 LNG 등 액화가스 기술도 함께 다루며, 액화수소 운반선 설계 검증과 극저온 장비의 실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

○ 울산-인천시, 수소·LNG 산업 상생업무협약 체결 ('26.10.30, 문화일보)

- 울산시와 인천시는 10월 30일 오후 수소·LNG 산업 협력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함
- 양 도시는 수소 생산·공급체계와 수소차·충전소 확대, LNG 냉열 활용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
- 양 도시는 관련 기업의 공급망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, 제도·규제 개선을 협의할 계획임

○ 중국은 '수소 가격'을 보고, 한국은 '차 대수'를 센다 ('26.10.30, 월간수소경제)

- 중국 징진지 수소시범도시군은 수소차 약 1만2천 대와 충전소 100곳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수소 공급가격을 kg당 25위안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
- 중국은 수소차 보급 대수뿐 아니라 실제 운행량과 수소 사용량에 연동한 지원으로 운송 회랑과 충전 수요를 확대하고 있음
- 한국은 2027년 수소차 구매보조금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차량 보급 대수 중심의 평가를 넘어 충전가격과 이용률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

○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… '세계 1위 수소도시'로 도약한다 [다시 뛰는 부울경] ('26.10.30, 서울신문)

- 울산시는 수소배관망을 현행 198.5km에서 2028년 210km로 늘리는 사업에 2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
- 울산시는 2028년까지 829억 원을 들여 10MW 규모 원전 연계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하루 4t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, 2029년까지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도 조성할 예정임
- 시는 수소차를 현재 3,883대에서 2030년 5,600대로, 충전소를 17곳에서 22곳으로 늘리는 한편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혼소 발전 실증을 추진함

□ 해외

○ **[남아공·나미비아] 녹색기후기금, 수소·산업 탈탄소화 펀드에 1억4천만 달러 승인** ('26.10.29, Fuel Cells Works)

- 녹색기후기금(GCF)은 10월 27일 남아공·나미비아의 녹색수소·산업 탈탄소화 투자를 위한 1억4천만 달러(약 1,870억 원)의 지분금융을 승인했으며, 남아프리카개발은행(DBSA)이 인증기관으로 관리·감독을 맡음
- 승인액 중 8,400만 달러(약 1,120억 원)는 남아공 SA-H2 펀드의 건설 지분투자에, 5,600만 달러(약 740억 원)는 나미비아 SDG Namibia One 펀드에 배정되며, 개별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원금 확정은 아님
- 나미비아 배정액은 초기 개발 1,500만 달러(약 200억 원)와 건설 지분 4,100만 달러(약 540억 원)로 나뉘고, 기존 개발지원 대상에는 Hyphen 수소·암모니아, HyIron 녹색철, Dâures 녹색비료 사업 등이 포함됨
- GCF 자금은 개발 단계 1,500만 달러(약 200억 원)와 건설 단계 1억2,500만 달러(약 1,670억 원)의 투자로 구성되며, Climate Investor Three가 목표로 하는 총 12억 달러(약 1조 6,000억 원)의 공공·민간 자본 조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
- 이 투자 플랫폼은 30~40개 사업과 재생에너지 1.52GW, 온실가스 감축 2,420만 톤을 목표로 제시했으나, 이는 전체 산업 탈탄소화 사업의 전망치이며 개별 수소사업의 확정 생산능력이나 달성 실적은 아님

○ **[멕시코] 멕시코 파시피코 멕시놀, 210MW 수전해 설비 EPC 본계약 체결** ('26.10.29, Fuel Cells Works)

- 트랜지션인더스트리즈는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파시피코 멕시놀 프로젝트에 들어갈 약 210MW 수전해 설비에 대해 지멘스에너지·테친트E&C와 설계·조달·시공(EPC) 본계약을 체결했으며, 계약 이행에는 프로젝트 금융 조달 등 선행조건의 충족이 필요함
- 이번 계약은 2025년 8월 발표한 기본설계 이후 설비 구축을 다음 단계로 옮기는 조치로, 지멘스에너지의 Elyzer P-300 기술을 적용할 예정임
- 생산한 재생수소는 하루 6,130톤 생산 규모로 계획된 저탄소 메탄올 단지의 비생물기원 재생연료(RFNBO) 제조에 사용될 예정임
- 참여사들은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2027년 초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, 지멘스에너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 설비가 미주 지역 자사 최대 수전해 시설이 된다고 설명함
- 발주사는 2030년 가동 시 연간 RFNBO 메탄올 약 17만5,000톤, 재활용 탄소연료 메탄올 약 17만5,000톤, 천연가스와 탄소포집 기반 저탄소 메탄올 약 180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